

인구문제와 사회경제학적 양상

안 계 춘

<연세대 문리대학 교수>

I. 인구문제

인구변동은 인구분포, 인구크기의 변화, 이동 등을 통털어 말하며, 인구성장은 인구변동중 인구크기에 있어서의 변화를 말한다. 인구의 크기에 변화를 주는 요인은 출생, 사망, 이동이다.

인구증가는 출생과 사망의 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연증가와 이입과 이출에 의해서 증감이 결정되는 사회적 증가가 있다.

인구 성장의 측정방법 :

1. 인구 Sensus를 아용해서 측정.

연평균 성장율은 (Annual average growth rate) 는 $P_t = P_0(1+r)^t$ 즉 종인구=먼저 인구(1+연평균 성장율)기간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인구 연평균 성장율이 1955~1960년에 2.8%였으므로 연평균

- 0.5%로 성장하면 140년후.
- 1%로 // 70년후
- 1.5%로 // 47년후
- 2%로 // 35년후
- 3%로 // 23년후

인구가 2배가 된다.

2. Vital rates(생정율)에서 측정

- 연간 증가율 (Annual rates of increase)

출생율—사망율= (A)

이입—이출= (B)

• 보통출생율 (Crude birth rate) : 인구 1,000 명당 그해의 출생수, C.B.R로 표시.

• 사망율 (Crude death rate C.D.R) : 인구 1,000 명당 그해의 사망수

• $\frac{\text{Total birth rate}}{\text{Mid-year population}} \times 1,000 = \text{C.B.R}$

• 따라서 자연 증가율은 C.B.R-C.P.R

이동율 (Rate of net migration)은 이입—이출이며, 자연증가율과 이동율을 합한 것이 연간 증가율이다. 대부분 증가율은 자연증가율만 가지고 말하며, 연간 증가율과 이동율은 인구증가율에서 문제시 되지 않는다.

세계 인구 성장

세계 인구는 대개 추정해서 한다.

서력기월 (0년)에 2억5천만

1650년에 5억

1850년에 10억

1930년에 20억

1973년에 36~37억 (현재인구)

1975년에 40억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인구 연평균 성장율은 2.0%이므로 서기 2,000년에 67억, 150년후에는 자구의 최대 수용 한계인 500억에 달하게 된다.

아시아 인구는 세계 인구의 55.7%를 차지하며, 대륙별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지역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대양주, 아시아로서, 대양주를 제외하고는 경제발전이 낮은데, 이는 인구 성장률이 높은 것과 경제발전과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사망율은 경제발전이 높으면 낮고, 경제발전이 낮으면 사망률이 높으나, 그 차이의 폭은 그리 크지 않다.

1950년후 급격한 인구증가의 요인은 인구변이(Demographic transition)이다. 인구변이는 산업혁명에서 비롯되었다. 즉, 산업혁명으로, 과학이 발달되어 농업에서 탈피하고, 의료기술의 발달과 위생시설의 향상 및 영양상태의 개선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사망률이 저하되고, 따라서 출생율도 저하되어, high vital rates에서 low vital rates이 된 것이다. 또한 출생율은, 산입화로 말미암아, 농업에 소요되던 노동력이 잉여된 까닭에, 대가족제도에서 소가족제도로 전환되어 더 감소되었다.

인구변이를 3단계로 구분해 보면,

I : pre transitional stage

II : transitional stage

III : post transitional stage인데, 후진국은 III의 초기상태, 선진국은 II의 후기나 III기에 있고, 후진국 인구가 세계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1910년 한일합방 직후 일본이 통치목적으로 조사한 인구는 1,300만이었으며, 최초의 Sensus 조사를 한 1925년에 1,900만, 1930년에 2,000만, 1935년에 2,200만, 1940년에 2,350만, 1944년에 2,500만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남북한 총인구이다. 해방후인 1949년부터는 남한인구만 2,000만, '55년에 2,150만으로 1% 성장율을 보였고,

'60년에 2,500만으로 2.9%, '66년에 2,900만으로 2.7%, '70년에 3,100만으로 1.9%의 인구 성장율을 보였는데, '70년의 저하원인은, 만환과 인공유산 실시; 가족계획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자연 증가율은, Vital rate를 산출하는 인구동태 통계가 정확한 것이 없으므로 출생율과 사망율로 추정하는데, '65~'70년의 자연 증가율은, 보통출생율 37과 보통사망율 10.4의 차이인 2.6%이다.

인구추계는 가정에 따라 추계가 달라지나 대개 1980년에는 4천만, 2,000년에는 7천만에 가까워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II. 인구의 사회경제학적 양상

1. 인구와 자연자원

Thomas Malsas 는 기하급수적인 인간의 생산과정(번식능력)과 산술급수적인 식량생산능력의 불균형은 시대 변천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불균형은 계속 증가한다고 보았다. 식량의 생산능력은 시대에 따라 많이 발전되어 왔으며, 아직도 개간지는 남아있지만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토지의 단위 생산량을 늘이는 길밖에 없으나, 이 또한 한계가 있고, 농업 이외의 식량생산기술이 개발되지만 이는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 Energy개발의 역사

1. 원시적 단계 : 인간의 육체적 힘을 이용
2. 자연적 개발 : 물, 바람 등 자연의 힘을 이용
3. 불의 발명 :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
4. 원자력의 개발

천연자원의 매장량도 한계가 있고, 개발도 쉽지 않아, 막대한 재산과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따라서 인구 증가 속도와 Energy 개발 속도에

balance 가 없으면 생활수준이 낮아진다. Energy 원과 천연자원 문제등은 유한성이 있다 해도 한 국가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전세계의 공통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해결이 복잡해 진다.

• 식량 Energy 원의 추세

경제발전과 상반된 현상을 나타낸다. 발전도상 국가는 식량문제에, 선진국은 Energy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선진국은 모든 Energy 의 3/4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인데, 해결책은 국가간의 노력밖에 기대할 수 없다.

• 우리나라의 식량생산과 자연자원

우리나라 자체의 식량생산량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량수입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Energy 도, 목재에서 석탄 석유의 순으로 변화되어 사용중이나 자연자원이 풍부치 못해, 외국에 의존하는 형편인데, 국제정치와 관련되므로 전망이 밝지 못하다.

2. 인구성장과 경제발전

인구성장과 경제발전은 서로 상호관련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발전도상 국가에 있어서 인구성장의 특징은 ① 출생율이 높고 ② 사망율이 낮거나 낮아지는 현상에 있고 ③ 인구성장속도가 빠르고 ④ 유년부양층(14歲이하)의 비율이 크다는 것이다.

이 4가지 특징으로, 경제발전에 미치는 요인이 되는 투자와 노동력을 살펴보면, 케인즈는 말하기를, 이미 발전되어 있는 나라는 공황에 대비하여 소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인구성장이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나, 저개발 국가는 사정이 다르다고 하였다. 즉 인구증가로 소비가 증가되어 저축이 없고, 산업투자가 불가능해 진다.

노동력(14歲~64歲) 인구에게 생산적인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은 개인소득 증가라는 국가의 목표인데, 이미 정해진 시설에 비해 불어나는 인구가 많아, 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자가 증가한다. 노동력에 따른 질을 보면, 비농업분야는 training 을 필요로 함으로, 훈련시키는 것도 문제이며, 훈련을 받았어도 일할 분야가 없는 경우, 노동의 질적향상을 기하기가 어렵다.

× × ×

「Badge 판매」



섭외공보부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본회 마크로된 메달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Uniform 및 일반의상에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신학교의 구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공동체라는 유대의식을 갖게된다.
2. 해외에 체재하고 있는 회원들이 서로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고국의 협회 활동을 인식하고 자랑할 수 있게하기 위함이다.
3. 가격(개당 300원)
4. 신청방법은 각지부 및 본회 섭외공보부에 신청한다.